

자동차·대형 가전제품 사려면 올해가 찬스

소비 활성화 대책...연말까지 소비세율 1.5% 낮춰

국산차 20만~200만원·가전제품 최대 9만원 인하

골프 대중화 추진...10월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와 고가 가전제품에 붙는 세금이 1.5%포인트 낮아진다.

현대자동차 아반떼는 34만원, 쏘나타는 50만원가량 가격이 싸지는 등 국산차 가격이 최소 20여만원에서 최대 200여만원까지 인하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 등 대형 가전제품 판매 가격은 1만2000원~9만원 내려간다.

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자동차와 대형 가전제품에 붙는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인하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비 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소비자들은 27일부터 바로 세금 인하 혜택을 내려간 가격으로 제품을 살 수 있게 된다.

세계 혜택은 올해 연말까지만 적용된다. 자동차는 공장도가격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떨어지면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와 교육세 합계액의 10%) 인하 효과도 볼 수 있다.

차종별로 보면 기아차 K3 1.6 디럭스의 경우 총 100만8000원의 세금 가운데 30만2000원이 깎인다. 현대차 그랜저 2.4 모델은 194만원 중 58만2000원이 인하된다. 1억원이 넘는 고가 차량은 세금 인하 효과가 100만원대로 커진다.

전력 소비량이 많은 대용량 가전제품의 출고 또는 수입가격에 붙는 개별소비세도 5%에서 3.5%로 낮아진다. 에어컨(소비 전력 3700Wh 이상)은 2만9000원, 세탁기(1회 세탁 소비전력 720Wh 이상)는 2만1000원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냉장고(월 소비전력 40kWh 이상)에 붙는 세금은 6만7000원 줄어든다. 정격 소비 전력 300W 이상 TV는 세금이 29만9000원에서 20만9000원으로 9만원 줄어 세금 인하 효과가 가장 크다.

내년부터 개별소비세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향수·녹음·로열젤리 개별소비세도 연말까지 7%에서 4.9%로 인하된다.

내년으로 소비를 미루는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카드'를 내놓은 것은 2012년 9월 이후 3년 만이다.

정부는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로 세수가 1200억원~13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자동차 판매가 늘어난다면 추경경정예산(추경) 편성 이후를 기준으로 추가 세수 결손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또 소비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골프 대중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공공 골프장을 중심으로 캐디·카트 선택제를 확대 시행토록 유도하기로 했

다. 캐디와 카트를 이용하지 않으면 1인당 4만~5만원의 이용료를 아낄 수 있다.

이와 함께 10월에는 2주 동안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를 연다.

이 기간에 백화점·슈퍼마켓·대형마트 등 전국 유통업체가 대규모 합동 세일 행사를 한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 행사에선 내국인 대상 할인 혜택과 점포시장·온라인 쇼핑물 등으로 참여 기관이 확대된다.

정부는 오는 10월 19일~11월 1일 '2015년 가을 관광 주간'을 열고 공무원의 가을 휴가를 독려해 국내 여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고령층이 안정적으로 소득 흐름을 확보하도록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 지금은 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이어야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부부 중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면 된다.

이밖에 정부는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해외에서 '직구(직접구매)'할 때 내는 세금을 줄여주고, 병행수입한 제품의 사후 서비스(AS)를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계수교차로·서광주IC 광주 교통량 최다

市 조사...1일 총 589만대 운행

출퇴근 시간 구성로 가장 막혀

광주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교차로는 계수교차로, 시외 나들목은 서광주IC로 조사됐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시내 61개 교차로에서 1일 교통량을 조사한 결과 계수교차로 24만9000대, 상무교차로 21만4000대, 산월분기점 17만8000대, 광천사거리 17만4000대 순이다.

계수교차로는 광주의 관문으로 고속도로와 무안공항 방면 등이 연결되는 지점이다. 1일 총 교통량은 589만여대이며 전년 대비 10만대(1.75%) 가량 줄었다.

제1순환도로 내 도심 32개 지점 교차로 교통량은 283만여대로 전년 대비 8.49%가 줄었으나 외곽 29개 교차로는 4.81% 늘었다.

이제는 제1순환도로 외곽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이 수반, 첨단지구를 연결하는 교통량과 상무 신도심 진출입 교통량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내에서 시외로 나가는 1일 교통량은 서광주IC(나들목)가 6만4000여대로 가장 많고 동림IC 5만8000여대, 소태IC 5만3000여대 순이다.

시외 유출입 교통량은 나주 혁신도시 등 전남북 개발로 인한 교통 및 관광 수요 증가로 전체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내 주행속도는 42.80km/h로 전년 대비 0.60%(0.26km/h)가 줄었다. 교통 신호 대기시간 등을 모두 포함한 통행(여행)속도는 30.43km/h로 4.19%(1.33km/h)가 감소했다.

이 조사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이뤄졌으며 교통량, 차량속도, 교통수단별 수송실적 등을 조사했다.

이 조사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이뤄졌으며 교통량, 차량속도, 교통수단별 수송실적 등을 조사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020년 광주·전남 노인비중 20% 돌파

호남지방통계청 '사회변화상'

앞으로 15년 후면 광주는 10명 중 2명이, 전남은 10명 중 3명이 노령(65세 이상) 인구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26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내놓은 '광주·전남지역 사회변화상' 자료에 따르면 광주의 총인구는 2020년 151만7000명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됐다.

총인구에 대한 유소년(0~14세) 인구의 비중은 올해 15.6%에서 2030년에는 14.3%까지 줄어든 전망이다. 반면 노령 인구 비중은 올해 11.1%에서 2030년 21.3%로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를 반영한 노령화 지수도 점차 증가해 2025년 118.5%를 기점으로 노령인구가 유소년 인구보다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남의 총인구는 지난 2000년 203만5000명을 정점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유소년 인구 비중은 2000년 20%에서 2030년 11%로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노령 인구의 비중은 2000년 13.4%에서 2030년 32.2%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 분야의 정규직·비정규직 비중을 살펴보면 광주는 정규직이 2004년 67%에서 2014년 60%로 축소되는 추

세다. 비정규직은 2004년 13만5000명에서 2014년 22만명으로 8만5000명이 증가해 그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전남의 경우 정규직은 2004년 58%에서 2014년 61.1%로 완만하게 늘어나는 추세다. 비정규직은 2004년 17만2000명에서 2014년 19만2000명으로 2만명이 증가했으나 정규직 증감률이 떨어지면서 비중은 낮아지는 추세다.

교육 부문에서 사교육은 광주의 경우 과거 5년간 공공교육 활성화로 초등학교 사교육 참여율이 12.3% 감소했고 월평균 사교육비도 2.6% 늘어나는데 그쳤다.

하지만 중학교 사교육비는 2014년 27만3000원으로 2009년에 비해 4만5000원이 늘어 19.7%나 상승했다.

전남은 초등학교 중학교 모두 사교육 참여율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초등학교는 2009년 82.5%에서 2014년 72.7%로, 중학교는 69.2%에서 62.7%로 낮아졌다. 사교육비는 초등학교는 16만원, 중학교는 21만원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이번 조사는 호남지방통계청이 광주·전남의 과거 10년간 시도별 통계자료를 수집해 분석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호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http://korsta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소방본부 IT 활용

섬 지역 환자 이송 구축

나르미선박 GPS 등 지원

전남소방본부는 섬 지역 응급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IT(Information Technology)를 기반으로 한 환자 이송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남도가 2013년에 전국 최초 시범사업으로 구축한 환자 이송 시스템을 확장한 것으로 국비 3억7000만원을 들여 나르미선박 150척에 위치정보 장비를 설치했다.

긴급이송 지원시스템은 섬 지역 응급환자 발생 시 119 종합상황실에서 가장 가까운 나르미선에 현장출동을 요청하는 구조로 이뤄진다.

또 나르미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인근 구조·구급인력을 지원하고 의료시설과의 정보공유로 신속한 이송체계를 확보한다.

전남소방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소방 업무에 적용해 도서·산간 지역의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



통일 염원 '피스로드' 광주 도착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며 전 세계인이 함께 달리는 '피스로드(Peace Road) 2015' 행사가 26일 광주시청 광장에서 열렸다. 지난 5월30일 출발한 피스로드 종주는 아프리카-중동-유럽 루트와 남미-중미-북미-일본 루트와 오세아니아-아시아 루트를 거쳐 마지막 종착지인 한반도에 이르는 93일간의 통일대장정을 펼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지난 10년 신문 핵심어는 '혁신·출시·모바일'

국립국어원 광복70주년 학술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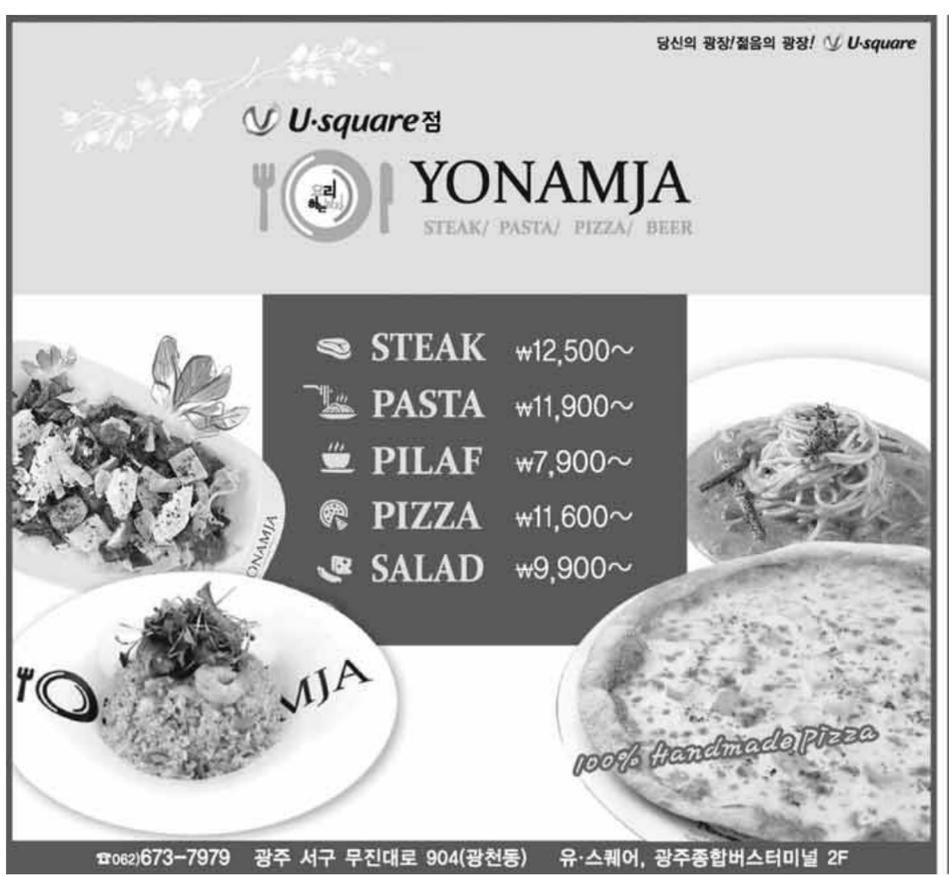
문화센터 연구팀(최재홍·김일환·홍정하·이도길)은 1946~2014년 동아일보 기사에서 1000번 이상 등장한 1만7878개의 일반 명사를 분석해 핵심어를 추출했다.

그 결과 광복 직후인 1946~1955년에는 '소식통'·'당국자'·'재무부'·'착북'·'치안국' 등의 단어가 많이 등장했다.

1956~1964년에는 '미터'·'시합'·'합승'·'1965~1974년에는 '공산품'·'개발대상국'·'자급'·'1975~1984년에는 '간염'·'대북한'·'디스코' 등이 많이 쓰였다.

신기술이 등장한 1985~1994년에는 '폐기물'·'전신망'·'사할'·'정보통신(IT) 기술'이 주목받은 1995~2002년에는 '휴대'·'마케팅'·'경영자' 등이 핵심어로 떠올랐다.

2003~2014년에는 '출시'·'모바일'처럼 새로운 소식이나 기술, '특성화'·'혁신적'처럼 변화와 장의를 보여주는 단어가 주로 쓰였다. '인재'·'존재감' 등 사람에 관한 핵심어도 눈에 많이 띄었다. /연합뉴스



당신의 광장! 젊음의 광장! U-square

U-square점

YONAMJA

STEAK/PASTA/PIZZA/BEER

- STEAK ₩12,500~
- PASTA ₩11,900~
- PILAF ₩7,900~
- PIZZA ₩11,600~
- SALAD ₩9,900~

100% Handmade Pizza

☎062)673-797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사기·성범죄·교통사고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대여금·공사대금·손해배상
보험금 등 각종 금융사건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채용공고문

기쁨두배! 행복두배!
더블저축은행과 함께할 인재를 찾습니다.

모집분야 및 인원	인원	응시자격	비고
대출영업	0명	경력: 저축은행 및 금융기관 경력자 (여성업무 2년 이상)	연봉:내규에 따름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는 당행 홈페이지-채용정보에서 다운로드
- 입사지원서 1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 자기소개서 / 자격증사본 / 경력증명서

전형절차

- 1차 - 서류전형 (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2차 - 면접전형
- 3차 - 신체검사

접수 및 문의

- 접수방법: E-mail, 내사 또는 우편 (당일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마감: 2015년 9월 4일(금) 18:30
- 접수처: (501-014)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85(충장로4가) 더블저축은행 총무팀 인사채용담당자 E-mail: double557@hanmail.net
- 문의처: 총무팀 ☎062-223-5506

지원자 유의사항

- 지원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합격 및 사가 취소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 더블저축은행 대표이사 (직인생략)